

화이트헤드의 언어 이해와 상징적 연관

문창욱
(연세대학교)

화이트헤드는 20세기 인간 경험의 다양한 영역을 조망하면서 사변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20세기 철학의 최대 화두였고 21세기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주요 관심거리로 남아 있는 언어에 대해서만큼은 체계적·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상징 일반에 관한 선명한 주제의식 속에 언어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관한 그의 생각을 명료하게 이해하려 한다면 상징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른 논제들을 다루는 그의 논의를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여러 저술에 흠여져 있는 언어에 관한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추적하여 부분적으로 체계화하고, 언어에 관한 현대 철학의 다른 견해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그의 언어 이해의 특징을 드러내 보려고 할 것이다.

1

화이트헤드는 문어이든 구어이든 언어가 인간이 그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라고 생각한다(MT 38, Symbolism 87)¹⁾. 언어는 이러한 적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사유의 양태』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언어는 인간의 재능이 이룩한 최고의 업적으로서 복잡한 현대 기술을

【Keywords】 linguistic philosophy, language and thought, symbolic reference, symbol and meaning, philosophical speculations

1) MT는 화이트헤드의 *Modes of Thought*(New York: The Free Press, 1968)를 약기한 것이고, Symbolism은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New York: Macmillan Co., 1927)를 약기한 것임.

을 능가한다”(MT 31). 물론 근원적인 언어의 유형은 “일련의 발성에 지나지 않는다”(PR 264).²⁾ 언어가 인간의 경험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은 감정은 표현하거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언어가 지극히 세련된 오늘날에도 구어는 이러한 기능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MT 37). 특히 대상 지시와 감정 표현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언어의 사례는 셰익스피어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영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조그만 세계, 은빛 바다에 박혀있는 이 보석”(Symbolism 67). 애국적인 영국인이 내뱉은 이 말은 분명히 영국을 상징하면서 강력한 감정의 분출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는 이런 표현과 지시의 기능에서 이중의 “상징적 연관”(symbolic reference)을 수반한다. 화자 쪽에서는 사물에서 언어로의 상징적 연관이 있고 청자 쪽에서는 언어에서 다시 사물로의 상징적 연관이 있다(Symbolism 12). 상징적 연관의 이러한 과정은 언어의 지시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문어가 인간 경험에서 보다 주도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MT 38).

그런데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경험과 이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언어의 이런 사용은 기억을 가능하게 하며 최소한 용이하게 한다. 언어는 또한 반성을 통해 경험을 조직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직접적인 사태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과거나 먼 곳의 사태를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나아가 언어의 도구성에 힘입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넘어, 자기실현에 본질적인 자기 검토를 위한 내적 대화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언어는 사고의 자유와 반성적 비판 정신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의 영혼은 언어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인류의 정신성과 인류의 언어는 서로를 창조했다.”(MT 41)는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인

2) PR은 화이트헤드의 *Process and Reality*. 1929. Corrected editio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New York: The Free Press, 1978)를 약기한 것임.

간 문명은 언어의 성과이며 언어는 전진하는 문명의 산물”(MT 34, Symbolism 68)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문맥에서이다.

화이트헤드는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에서 “교육에 있어 고전의 위치”를 논하는 가운데, 언어가 사실과 경험을 기록하고 이들을 쉽게 회상하고 나아가 문명화된 삶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조직하는 데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자극제이자 지침을 제공하는 데서 탁월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예를 들어가며 역설하고 있다. 이 후자의 기능은 감정 표현과 대상 지시 이외의 기능이다. 즉 언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 행위의 특수한 방향은 그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명확하고 특수한 상징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Symbolism 73). 언어는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이 실릴 때,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의 목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국가 통합의 토대가 된다(Symbolism 68, 73). 명령, 약속, 질문 등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의 사용 사례들이다. 언어와 인간 행동의 본능적 위상 간의 관계는 언어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배경으로 거론된다. 특히 언어는 간과되었을 수도 있을 충동에 주목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충동은 먼저 확인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과 이해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사태이다(Symbolism 69).

그런데 언어의 주요 기능, 특히 감정표현, 대상지시, 그리고 행동의 제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트헤드의 이런 일련의 논의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현대의 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대체로 언어가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실제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경우까지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할 경우 그는 정신 상태, 즉 인식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표현은 실제로 ‘나는 믿어도 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

우가 있다는 것이다.³⁾ 그러나 우리는 화이트헤드에게서도 언어의 이런 특수한 기능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누군가가 동아시아의 신 개념(세계가 그에 순응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질서)을 사용할 때 그는 실제로 세계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범신론적 신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가 세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신에 관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RM 69)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기능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이해는 사실상 단순히 우리가 정형화한 것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며, 그래서 또한 오늘날 언어철학의 일반적 경향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언어와 사유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언어는 사유를 기록하고 기억의 토대로 기능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언어가 사유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하지만 사유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MT 35). 이는 예컨대 언어와 사유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으려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와 구별된다. 화이트헤드는 문장이 사유와 동일시될 경우 한 언어의 표현을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번역하거나 같은 언어 내에서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번역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문장이 하나의 사유라면 다른 문장은 다른 사유가 될 것이다”(MT 49). 나아가 우리는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관념을 갖고 있지만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언어와 사유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는 “모든 표현으로부터 추상된 순수한 사유라는 관념은 학문 세계의 허구”(MT 36)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는 다시 현대 언어철학의 일반적 믿음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J. Austin, "Other Mind",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XX.

4) RM은 화이트헤드의 *Religion in the Making*(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을 약기한 것임.

화이트헤드의 언어이해가 진정으로 20세기 영미 언어 철학의 일반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어를 상징 활동의 특수한 종류로 간주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언어 이외의 다른 상징 활동들이 있다. 이는 언어가 사유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화이트헤드의 진술에서 시사된다. 언어는 상징적 연관의 가장 중요한 유형이긴 하지만 유일한 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표현하고 대상을 지시하고 인간 행동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상징의 도구들이 있다.⁵⁾ 이들 다른 상징들 중에 주요 유형으로는 행동과 예술을 들 수 있다. 몸짓은 때때로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위대한 그림의 상징도 이따금 말의 힘을 능가한다. 풍부한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향냄새는 문어나 구어로 된 장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종교적 상징일 수 있다. 행동과 미적 경험을 결부시키는 종교의식은 감정을 표현하고 행위를 통제하는 데 고도로 효과적이다(PR 183, RM 20-23).

2

20세기 영미 언어철학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의미의 문제는 상징적 연관(symbolic reference)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논의 속에 들어 있다. 그가 의미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은 다음

5) 다양한 종류의 상징과 언어, 행동, 미적 현상, 수학 등은 우리의 지적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구들이 극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의 창조적 모험의 결과라는 것을 잊는 경향이 있다. 사실 대다수의 인간이 사용하는 상징들은 소수의 창조적 천재들이 만들어 처음 사용한 상징들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다. 상징의 영역에서 이런 창안자들은 시대적, 지역적으로 한정된 환경에서 작업하였다. 바이마르에서의 괴테, 엘리자베스 시대 잉글랜드의 셰익스피어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지역적 국소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다루고 그것을 새롭게 했다”(RM 136, RM 133-134). 화이트헤드는 진정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상징적 표현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존의 상징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은 문명의 창조적 전진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Symbolism Chap. 3 참조).

과 같다. “인간 정신은 경험의 일부 구성요소들이 다른 경험의 구성요소에 관한 의식, 믿음, 감정, 습관 등을 불러일으킬 때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구성요소는 ‘상징’이고 후자의 구성요소는 상징의 ‘의미’를 구성한다”(Symbolism 7-8). 사실 ‘상징적 연관’이라는 용어도 이처럼 상징에서 의미로의 전이를 일으키는 유기적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나무라는 사물을 그 의미로 가진다. 물리적 대상(정신적 사건)이 되는 구성요소가 의미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상징이고 의미인지는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달려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숲’이라는 말이 나무를 시사한다면 그 때 그 말은 상징이고 객관적 사실로서의 나무는 의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나무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숲이라는 말을 시사한다면 나무가 상징이고 숲이라는 말은 의미가 된다 (Symbolism 10-12, PR 182-3).

뿐만 아니라 낱말이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 역사적 문맥이나 사유 체계를 이해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신의 부성(父性)’이라는 말은 그것이 지시하는 여건(data) 또는 소여 즉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대상의 의미는 고대로마에서 현대 유럽에 이르는 동안 달라졌다. 아버지라는 말은 이들 두 문화에서 다르게 이해된다.

‘1더하기 1은 2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비역사적 진술 속에조차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들 기호가 어떤 종류의 여건을 가리키는지를 알고 나서야 혼동이 사라진다. 이 수학적 진술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물을 놓고 그것이 다른 특정한 유형의 사물에 덧붙여질 때 또 다른 특정 유형의 두 사물이 된다고 말하는 진술이다. 사과 하나와 오렌지 하나를 합하면 두 개의 과일이 된다. 그러나 불꽃 하나와 화약 일 파운드를 합하면 두 개의 사물이 되지 않는다.⁶⁾

이처럼 의미가 역사적 문맥이나 사유체계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 낱말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6) A. N. Whitehead, “Immortality,” in P. A. Schilpp (Ed.), *The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Northwestern University, 1941.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저’라는 말은 그의 존재의 한 순간에 있는 시저라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의 특수한 행동 유형을 가리킬 수도 있다(Symbolism 27-8, PR 264-5). 이와 관련하여 특히 화이트헤드는 구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끔 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어로서 ‘따뜻한 날’이라는 말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위치를 지적하는 식의 상당히 정확한 과학적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구어는 그 문맥의 역할을 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표현되는 경우와 극지방에서 표현되는 경우는 각기 다른 사태를 가리키게 된다(MT 39).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어떤 낱말과 연관되어온 정서가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 즉 그것의 의미에 전이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과정은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위대한 문필가는 말이 함의하는 정서적 내용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생기 없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술할 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가 있다(Symbolism 83).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의미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적절한 용법, 즉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규칙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현대 언어 철학자들과 다르다. 그는 다만 화이트헤드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그의 세 가지 주요 분석, 즉 대상을 지시하고 정서를 표현하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부응하여 의미의 세 유형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유형은 말이 가리키는 정신적 물리적 대상들이고, 둘째는 표현되는 정서이다(AI 290-1, 312).⁷⁾ 셋째 유형은 실용적인 것으로서, 말이 행위를 불러일으키거나 지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Symbolism 74). 따라서 실제로 의미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논의는 라일(Ryle), 스토로슨(Strawson), 오스틴(Austin) 등이 내세웠던 의미이론과 대비될 수 있다. 예컨대 스토로슨은 의미가 지시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의미 있는 단어(문

7) AI는 화이트헤드의 *Adventure of Ideas*(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3)를 약기한 것임.

장)는 “모든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 습관, 규약”을 동반하고 있는 것들이다.⁸⁾ 일상 언어에 관한 라일의 영향력 있는 논문은 이런 의미론에서 규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현법을 배우는 것은 동전이나 우표, 수표, 하키 스틱 등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언어 표현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논리의 규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키가 클 수 있으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크고 동시에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클 수는 없다. 또 아저씨는 부유하거나 가난할 수 있고 뚱뚱하거나 날씬 할 수 있지만 남성이거나 여성일 수 없고 오직 남성일 수 있을 뿐이다.”⁹⁾ ‘의미’라는 말은 화이트헤드가 하듯이 대상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라일이나 스토로슨이 하듯이 단어를 결합시키는 공인된 방식과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대상에 상징을 연관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의미라는 말의 이 세 가지 쓰임은 사실상 일상 언어에서 발견된다. 즉 사람들은 의미라는 말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다. 낱말을 엮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규칙이 최후의 법정인가 아니면 규칙은 인간이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단순히 규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가? 화이트헤드의 주장 속에는 언어 사용과 놀이 사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운데 언어의 사용을 동전이나 우표, 하키 스틱 등의 사용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 물론 놀이를 하거나 동전이나 우표를 사용하는 데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놀이와 동전이나 우표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들은 그 자의성의 정도에서 언어의 규칙을 훨씬 능가한다. 우표나 동전을 사용하는 과정은 해당 국가의 지극히 우연적인 우편제도나 경제 체계의 건전

8) P. F. Strawson, "On Referring", *Mind*, Vol. LIX, p.327.

9) G. Ryle, "Ordinary Languag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I, 1953, p.173.

성에 의존한다. 언어의 사용을 전적으로 놀이의 정신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삶의 현장에 동원되는 도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삶은 결코 단순한 게임에 그칠 수 없는 무거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말한다. “의미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현실적인 효과적 존재의 형태로 그 자신의 권리상 우리 앞에 존재한다”(Symbolism 57). 요컨대 의미는 여건이다. ‘편의를 위해 단순한 구문론에 호소하는 것’(Symbolism 2)은 잘못이다. 물론 대수 기호를 다루는 데 있어 규칙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 언어와 비수학적 전문 용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규칙이 언어의 사용을 인도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보는 것은 옳다. 나아가 “일반 용어는 그들의 활용 방식에 의해 그들을 정의하는 항구적인 문헌을 필요로 한다”(RM 34). 그러나 이들 규칙은 의미를 합법적으로 제어하지는 않는다. 규칙은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요약이다. 의미의 문제는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관한 물음을 넘어서서,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즉 여건)와 연결되는 이유에 관한 물음으로 나아간다.

규칙에의 의존이 낱말의 배열을 강조하는 성격의 것인 한, 화이트헤드의 언급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종류의 규칙은 수정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의미를 위한 최후 법정일 수 없다고 말한다. “자유인은 그들 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른다. 그러한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궁극적 목표를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징 활동에 관련된 행동을 사회에 부과하는 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의 기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징적 법규를 보존하는 데 있으며, 다음으로 그 법규가 계몽된 이성을 충족시키는 목적들에 이바지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Symbolism 88).

의미에 관한 마지막 물음이 남아 있다. 의미가 규칙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컨대 단어가 어떻게 그 의미가 되는 경험의 다른 요소들에 관한 의식, 믿음, 정서, 이미지, 용법 등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특수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어쩌서 경험의 특정한 구성 요소가 상징의 의미로 선정되는 것인가? 화이트헤드는 “그 자체

로 고찰될 때 상징과 그 의미는 양자 사이에 상징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 관계의 본성은 그 자체로 어느 쪽이 상징이고 어느 쪽이 의미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상징적 연관은 지각자의 본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종합의 요소이다”(Symbolism 9-10). 그러나 이 진술은 오해를 낳기 쉽다. 어떤 이유로 상징적 연관에서 특수한 의미가 낱말과 연결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낱말과 다른 경험적 여건을 연결한다. 특수한 낱말과 특수한 의미 사이의 연관에는 일반적인 일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치는 개체가 복잡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의 규칙은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여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낱말들의 용법에 관한 개요이다. 이들 상징이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가리키는 여건의 구조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들 상징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할 수는 결코 없다. 물론 상징의 사용에는 어느 정도 자의성의 요소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은 우리의 규약과 자의적 조작을 제약한다.

얼핏 보기에 여기서 화이트헤드의 태도는 상당히 진지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상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진술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이따금 글자그대로 참이거나 사실적인 진술보다 신화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플라톤적 생각에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상상적인 극적인 수행이나 문학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는 ‘둥근 사각형’이나 ‘현재의 프랑스 왕과 같은 것조차도 의미 있는 언급으로 받아들일 것처럼 보인다(MT 14, 17-18).¹⁰⁾

10) A. H. Johnson, *Whitehead's Theory of Reality*(Boston: The Beacon Press., 1952), pp.83-5, 102-4 참조

3

하지만 형이상학자의 눈으로 보기에 언어에는 언제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논의에는 언어의 역기능에 대한 다수의 설득력 있는 경고가 들어있다. “경험은 언어적 표현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¹¹⁾ 언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낱말들을 고안해냈다. 우리는 실천적 상황 가운데서 눈에 띄는 특징, 특히 사물들의 변화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낱말들은 비교적 충분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지시적 기능에서 언어는 유감스런 피상성에 빠져든다. 우주 가운데 존속하는 섬세한 측면, 복잡하고 일반적인 측면은 충분한 언어적 표현을 갖지 못한다. 요컨대 “언어는 불완전하고 단편적이며 원숭이의 정신성을 넘어선 평균적 단계를 기록할 뿐이다”(AI 291). “우리의 지성은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을 능가한다”(AI 209, RM 34). 우리가 인간의 개성을 논의하거나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데서 부딪치는 난점들은 화이트헤드가 언급하는 언어의 한계에 대한 예증사례가 된다(AI 209, RM 78). 일부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들은 일상 언어로 충분히 진술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들 문제들은 일상 언어의 조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나아가 언어는 우리의 주의를 사실들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부정적 경향성이 있다. 우리가 낱말들의 은폐 효과를 가까스로 피해간다고 해도 우리는 적절한 어휘를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사실들에는 거의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언어적 표현은 그 외양적 단순성으로 말미암아 그 표현이 가리키는 사실의 복잡성을 은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언어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일종의 마비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웅변적 달변의 유연성에 현혹될 수 있다. 여기에 “재치 있는 사람들의 가벼움”(MT 39)이 있게 된다. 화이트헤드의 다음과 같

11)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A. H. Johnson(ed), New York: Harper, 1959), p.167.

은 언급은 이를 예시하고 있다. “대학의 상급생은 낱말에 대응하는 사물들을 잃어버렸다. 그의 정신은 문학적인 장면에 사로잡혀있다.”¹²⁾ 화이트헤드가 책을 통한 학습의 간접성을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적인 경험이 삶에서의 효율성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학문 세계의 간접성(the second-handedness)은 그 평범성의 핵심이다. 그것은 온순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사실들에 의해 위협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AE 90).¹³⁾ 언어는 우리를 사실에서 등을 돌리게 하거나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사태의 현실적 정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감정, 믿음, 행동 등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다 (Symbolism 6).

물론 언어의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화이트헤드는 언어가 어떤 복잡성과 철학적 일반성의 문제에 관해서조차 건전한 정보의 원천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연의 유기체 이론, 특히 정신과 신체와의 긴밀한 결합이나 인간 신체와 주변 세계와의 긴밀한 결합에 관한 유기체론은 일상 언어로 적절히 기록될 수 있다(MT 114). 사람들이 “아무도 나는 여기에 있으며 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계속해서, 언어를 포함한 상징 일반에의 지나친 의존에 따르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삶에 있어 상징적 요소들은 열대 우림 속의 식물처럼 마구 뻗어나가려는 경향성이 있다. 인간의 삶은 그 상징적 장식물에 의해 쉽게 압도당할 수 있다. 낡은 상징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표현양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래에 적응하는 끊임없는 과정은 모든 사회에 필요한 기능이다”(Symbolism 61). “자신의 상징들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없는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원인이 되었든 아니면 무익한 환영의 압제에 다른 생명력의 점차적인 위축이 원인이 되었든 궁극적으로 쇠퇴할 것임에 틀림없다”(Symbolism 88). 그러므로 새로운 경험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기호가 고안

12) 위의 책, p.168.

13) AE는 화이트헤드의 *The Aims of Education*(New York: The Free Press, 1967)를 약기한 것임.

되어야 하며, 또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호들도 때때로 완전히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논점은 철학에서의 언어의 사용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4

철학의 영역에서 언어의 사용에 관한 화이트헤드의 입장은 보다 분명하고 예리하다. 그에 따르면 철학이 범하기 쉬운 주요 오류 중 하나는 “언어의 총분성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이다(AI 293, PR viii). “완전한 사전의 오류”도 이런 신뢰에서 비롯된다. 특히 “관습적인 영어는 불모의 사유와 쌍둥이 오누이이다.”¹⁴⁾ 이러한 결함은 유독 영어만의 특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헤드가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그리스어도 똑같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화이트헤드는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그리스인들)은 말이 혼동한 사물들을 구별하거나 말이 구별한 사실들은 결합시켜 생각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그리스의 사변 학파와 중세의 그 추종자들에게 있어 과학적 탐구는 일상 언어와 결부되어 있는 개념들을 가려내거나 분석하는 작업에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말의 의미를 결정하면 사실에 정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PR 12). 하지만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언어는 모든 사건은 어떤 체계적인 유형의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비결정적이다”(PR 12). 철학적 언어는 심오한 통찰과 거대한 일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언어가 그 일상적 용법에서 형이상학의 원리를 근시안적으로밖에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PR 167).

일상 언어가 삶의 일반성, 심오성, 복합성을 정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이 새로운 낱말과 구, 또는 적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낱말이나 어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논제를 전개하면서 화이트헤드는

14) A. N. Whitehead, "Remarks", *Philosophical Review*, Vol. XLVI, p.183.

“날말과 구는 그 일상적 용법을 넘어서서 일반성을 띠도록 확장시켜 사용해야 한다.”(PR 4)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화이트헤드는 물리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철학의 도구인 언어도 계속해서 고쳐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PR 11). 출발점은 일단 일상적인 용법에서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 날말과 구이다. 이들의 모호성은 구체적인 상황 속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호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명료화될 수 있다. 이때의 직접 경험이란 직관의 행위, 즉 인간 경험의 복잡하고 깊은 측면으로 가능한 한 뚫고 들어가는 직접적인 경험의 행위이다.¹⁵⁾ 화이트헤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모든 언어는 생략된 형태의 것일 수밖에 없으며, 직접 경험과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상상력의 비약이 요구되는 것이다”(PR 13).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 비약은 공상적인 비약이 아니다. 그것은 날말이 가리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통찰을 얻는 방법이다. “상상은 사실에서 유리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실들을 조명하는 방법이다”(AE 139).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일상 언어를 확장하고 고쳐 만드는지를 살펴본다면 그의 논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 주체라는 말을 놓고 보자. 이 말은 일상 언어에서 지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행위자로서의 인격체(또는 논의를 위한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화이트헤드는 그 말을 우주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하고 고쳐 만든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는 주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기술된다.¹⁶⁾ 일상 언어에서 주체(인격)는 다른 주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화이트헤드는 이 말을 수정하여 배타성보다는 상호연관성을 강조한다. 전통 철학에서 개별 주체의 배타성은 정신적 실체 이론에 반영된다. 화이트헤드의 ‘개조된 주관주의’(reformed subjectivism)에서 전통 실체의 배타성은 완전히 폐기된다. 완결적이고 배타적인 실체들은 발전 전개하는

15) A. H. Johnson, *Whitehead's Theory of Reality*, pp.9-11.

16) 화이트헤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대고 있다. PR 116, 177, AI 237, MT 149.

유기적 상호 작용 속에 있는 사건들로 대치된다. 우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직접 경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연합 과일 회사’라는 구절을 발음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인간 정신의 경험은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사건들로 구성된다. 즉 연합, 과일, 회사를 경험하고 발음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한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의 이행은 경험의 각 순간 내의 전개에 대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경험된 사실이다. 이런 방식으로 화이트헤드의 ‘수정된 주관주의’는 정신적 실체라는 데카르트의 학설에 들어있는 오류, 즉 라일이 『정신의 개념』(*The Concept of Mind*)에서 지적한 오류를 제거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변형된 유형의 내관, 즉 직관에 대한 호소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라일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실증주의 계열의 철학자들이 선호하던 ‘논리적 행동주의’에 의해 거부된 내적인 정신적 삶의 유형의 존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끌어들인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전통의 술어들을 확장하고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용어를 창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파악’(prehens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그는 이 말이 ‘관계’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3인간’ 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과 같은 난점들을 수반할 수도 있고, 또 절대적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관계라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악이라는 말은 사건들이 상호 관계 맺어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화이트헤드가 사용하는 다른 새로운 전문적 용어는 ‘영원한 객체’(eternal object), ‘주체적 지향’(subject aim), ‘주체적 형식’(subjective form),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 ‘신의 원초적 본성’(primordial nature), ‘신의 결과적 본성’(consequent nature), ‘신의 자기초월체적 본성’(superjective nature) 등이다.

철학에 적합한 언어는 자연과학, 수학, 기호논리의 전문 용어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화이트헤드는 이들 언어와 기호들은 그들 고유의 영역에서 유용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철학의 폭넓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완전히 부적절하다. “수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연역법은 일반성의 범위

를 시험하는, 본질적으로 보조적인 검증방식이라는 그 진정한 위치를 점하는 대신, 철학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철학에 떠맡겨져왔다”(PR 17).

사실의 기록에 관한 한, 수학은 추상의 특징을 지니는 까닭에 결함이 있다. 그렇기에 수학에서 우리는 "어떤 특수한 존재들에 대한 그 어떤 고찰"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SMW 30).¹⁷⁾ 때때로 어떤 상황 속의 중대한 사실은 특수한 사실인 경우가 있다. 수학은 이러한 특수성을 정당하게 다룰 수 없다. 이와 동일한 반론은 추상적인 기호 논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실제로 인간 경험의 모든 국면에 기호 논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 아주 낙관적이었다고 하는 반론이 제기된다면 이에 관련 언급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호논리는미학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 단계로부터 그것은 윤리학과 신학을 정복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¹⁸⁾ 하지만 이 진술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화이트헤드는 기호 논리학이 양의 패턴을 넘어서는 다른 유형의 패턴을 검토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었을 먼 미래의 사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것은 실제적인 변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그것은 미학의 토대가 될 뿐, 미학이나 윤리, 또는 신학의 개별적인 사실적 측면들에 대한 진술이 될 수는 없다. 기호논리의 불충분성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최종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즉 "사유의 전진에 대한 충분한 분석으로 간주되는 논리는 사기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것은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상식이라는 배경을 필요로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철학적 사유의 최종 전망은 특수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정확한 진술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성은 사기이다."¹⁹⁾

특수과학에 대한 언급은 논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까지 포함한다. 어떤 개별과학이든 그 자체로 고찰해보면 철학의 목적을 위한 충분한 언

17) SMW는 화이트헤드의 *Science and the Modern World*(New York: Macmillan Company, 1925)를 약기한 것임.

18) A.N. Whitehead, "Remarks", *Philosophical Reviews*, Vol. XLVI, p.186.

19) A.N. Whitehead, "Immortality," in P. A. Schilpp (Ed.), *The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Northwestern University, 1941.

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밀과학이 토대로 삼는 경험은 완전히 표피적인 것들이다”(MT 29-30). 정밀과학은 감각경험의 명석 판명한 관념들과 수학의 추상에 집중한다. 하지만 경험의 모호하고 불분명한 여건들은 이따금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주장이다. 사실 과학의 언어로도 특정 인물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명석한 인식이나 정확한 진술을 허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개성의 깊은 측면에 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한 기술은 산문이나 시문학의 언어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물론 문학 작품이 일상 언어의 한계 내에 머무는 한, 그것은 일상 언어의 불충분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철학과 시가 일상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말한다. 이런 문맥에서 그는 위대한 문학이 보여주는 의미들을 언급하고 있다(AE 91; PR 11). 특히 그는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the Modern World*)의 “낭만주의적 반동”이란 표제어의 장에서 이런 주장의 인상적인 다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워즈워드(Wordsworth)와 셸리(Shelley)가 지극히 효과적으로 자연의 사실들의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셸리의 경우 사물들이 변하는 동안 존속하는 영원의 요소가 있다는 심오한 통찰까지 보여준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에게서 철학적 사변은 문학적 은유를 넘어 실재의 심층을 ‘기술’(description)하려는 시도이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철학적 어휘들을 아무리 새롭게 고쳐 만들고 확장한다 해도 완전히 충분한 것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생각에 이들 어휘들은 다만 일상 언어나 과학, 수학, 기호논리의 언어보다 한층 개선된 언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반복하건대 이들은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제1원리들을 최종적인 형태로 정식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망한 일이다. 통찰의 허약성과 언어의 결함이 무정하게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PR 4).

인용문헌

- Whitehead, A. N.,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25.
- _____, *Religion in the Ma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 _____,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Macmillan Co., 1927.
- _____, *Process and Reality*. 1929. Corrected editio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_____, *The Aims of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_____, *Adventure of Idea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3.
- _____, *Modes of Though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_____, "Immortality," in P. A. Schilpp (Ed.), *The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Northwestern University, 1941.
- _____, "Remarks", *Philosophical Review*, Vol. XLVI.
- Austin, J., "Other Mind",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XX
- Ryle, G., "Ordinary Languag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I, 1953.
- Johnson, A. H., *Whitehead's Theory of Reality*. Boston: The Beacon Press, 1952.
- _____,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1959.
- Strawson, P. F., "On Referring", *Mind*, Vol. LIX.

[Abstract]

Language and Symbolic Reference in Whitehead's Philosophy

Chang-Ohk Moon
(Yonsei University)

Whitehead's discussion of language is not to be found in any one book or article. It is interwoven with his discussion of many other questions. He was, however, greatly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symbolism in general and the uses of language. He regards language, spoken or written, as an instrument devised by men to aid them in their adjustment t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Language is used for many specific purposes in the process of this adjustment. Words are employed not only to refer to data and to express emotions. They may be used also to record experiences, and thoughts about these experiences. Words also function as instruments i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s as they are considered in retrospect. Thus words free us from the bondage of the immediate.

And Whitehead's theory of meaning is implicit in his discussion of the functions of language. According to him, the human mind is functioning symbolically when some components of its experience elicit consciousness, beliefs, emotions, and usages, respecting other components of its experiences. The former set of components are the 'symbols', and the latter set constitute the 'meaning' of the symbols. Whitehead points out that one word may have several meanings, i.e. refer to several different data. In order to understand, thus, the meaning to which a word refers, it is sometimes very important to appreciate the system of thought within which a person is operating.

Further, Whitehead's discussion of language includes a number of cogent warnings of the deficiencies of language, and hence the need for great care in the use of words. In fact, language developed gradually. For the most part we have created words

designed to deal with practical problems. Attention focuses on the prominent features in a situation, in particular the changing aspects of things. With reference to such data our words are relatively adequate. However, this issues in an unfortunate superficiality. The enduring, the subtle, the complex and the general aspects of the universe do not have adequate verbal representation. For this reason, Whitehead's position concerning the uses of language in speculative philosophy is stated with pungent directness. The uncritical trust in the adequacy of language is one of the main errors to which philosophy is liable. Since ordinary language does not do justice to the generalities, profundities and complexities of life, it is obvious that philosophy requires new words and phrases, or at least the revision of familiar words and phrases. Proceeding to develop the theme Whitehead contends that words and phrases must be stretched towards a generality foreign to their ordinary usage. In the same vein Whitehead refers to the need to realize that language which is the tool of philosophy needs to be redesigned just as in physical science available physical apparatus needs to be redesigned. But even these words and phrases, stretched or redesigned, are never completely adequate in philosophical speculations. They are, in his opinion, merely a great improvement over ordinary language or the language science, mathematics or symbolic logic.

접 수 일 : 2004년 4월 22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